

經絡의 氣化體系에 대한 研究

손창수¹ · 김윤태¹ · 김길훤¹ · 신흥묵¹

¹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A research on the conversion systems of Channels

Chang-Su Son¹, Yon-Tae Kim¹, Gil-Whon Kim¹, Heung-Mook Shin¹

¹Dept. of Physi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s and methods : This research aims to study about conversion system of channels. In the present study, we investigated the movement and conversion of channels on the base of three step theory(三才論), *Yeak*(易), *Hadu Laksea*(河圖洛書) and five elements motion and six kinds of factors(Six-Qi).

Results and Conclusions : The organization of meridian is composed of the following three parts: hand and foot, Yin and Yang, and the viscera and bowels. It is play an important role in energy flow and its conversion. The law governing energy conversion is divided into three groups i.e. taiyin-yangming channel, shaoyin-taiyang channel and jueyin-shaoyang channel group. Those are composed of *Deadea*(對待) of Six-Qi, making the body homeostasis. Taken together, we suggest that the conversion system of meridian is founded on the unity between the human body and nature which provides the medical workers with a necessary method of thinking in treating diseases.

Key words : Conversion system, channel, *Deadea*(對待), five elements motion and Six-Qi, the unity between the human body and nature

I 緒 論

『黃帝內經』에서는 “十二經絡은 五臟六腑가 天道에 응하고, 안으로는 臟腑와 바깥으로는 肢節과 연계된다. 또 五臟의 통로는 모두 經隧에서 나오며, 이를 통해 氣血이 운행되고, 각종 질병이 이곳에서 변화하고 발생한다”¹⁾²⁾고 하였다. 즉 臟腑가 經氣를 발현하여 인체의 유기적 정체성을 발휘하는 연락체계가 바로 經絡인 것이다.

經絡의 중요성에 대하여 『醫學入門』에서는

“經絡을 모르는 자는 밤길에 등불 없이 길을 가는 것과 같다”³⁾고 하였고, 『靈樞經別』에서는 “十二經脈은 사람이 생존하는 수단이요, 질병이 형성되는 원인이요, 환자를 치료하는 수단이요, 질병이 치유되는 곳이다, 따라서 초학자는 경맥으로부터 시작해야 하고, 의학에 조예가 깊은 자라 할지라도 경맥에 주의해야한다”⁴⁾고 하여 생리, 병리, 진단 및 치료에 있어서 경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 張景岳⁵⁾은 “經脈은 臟腑의 枝葉이요, 臟腑는 經脈의 根本이다. 十二經脈의 이치를 알면 陰陽의 表裏를 명확히 알수 있고, 氣血을 구분하며, 虛實을 관찰할 수 있고, 天道의 逆과 從을 살필 수 있으며, 精氣와 邪氣에 따

• 교신저자: 신흥묵, 경주시 석장동 707번지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Tel. 054-770-2372, Fax. 054-742-5441, E-mail: heungmuk@dongguk.ac.kr
• 접수: 2004/02/17 • 수정: 2004/03/05 • 채택: 2004/03/10

은 安危를 辨別할 수 있다.”고 하여 臟腑-經脈-陰陽의 관계를 설명함으로써 경락체계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경락체계는 馬王堆 漢墓에서 출토된 醫書인 『陰陽十一脈灸經』(이하 『陰陽』으로 간칭함)과 『足臂十一脈灸經』⁶⁾(이하 『足臂』로 간칭함) 및 황제내경의 『靈樞經脈』, 『靈樞本輸』에 의하여 살펴보면, 手足, 六經(三陰三陽) 및 臟腑의 對待 원리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臟腑의 경락체계는 六經의 표리관계로 六氣의 조절을 통한 經脈의 순환, 經氣의 氣化 및 장부생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시사하는 등 일정한 의의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논자는 『黃帝內經』, 『河圖』, 『洛書』, 『易』의 八卦⁷⁾, 『運氣七篇』⁸⁾, 『三才理論』⁹⁾을 중심으로 경락의 기화체계를 연구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II 本 論

1. 經絡의 형성

1) 經絡의 형성배경

『素問氣交變大論』에서는 醫道에 정통한 사람

은 위로는 天文을 알고, 아래로는 地理를 알며, 가운데로는 人事를 알아야 한다는 자연과 인체의 밀접관계를 天文, 地理, 人事의 三才論에 근거하여 설명하였다.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는 “상고 시대의 聖人들은 사람의 형태를 논리적으로 연구하여 臟腑의 위치를 분별하고, 경맥의 분포를 깊이 관찰하여 三陰三陽經脈의 표리가 상합하고 관통하며 교차되는 곳과 순행하는 노선이 있고, 經脈이 시작되는 기혈에 각각 일정한 명칭이 있으며 肌肉의 계곡과 관절의 연결부위에 모두 일정한 기시점이 있고, 각기 順行하고 逆行함에 조리가 분명하며 사시음양의 변화에 일정한 규율이 있고, 자연계의 외부 환경과 인체가 서로 상응하여 모두 表裏相合의 관계가 있다고 하여” 인체에 대한 논리적 연구와 臟腑와 經絡에 대한 견해를 엿볼 수 있다.

『靈樞經水篇』¹⁰⁾에 의하면 十二經脈은 밖으로는 十二經水 상합하고, 안으로는 오장육부에 속한다고 하여 경맥의 형성이 천지의 법칙에 부합됨을 설명하였으며, 十二經脈의 十二는 “十二從應十二月”¹¹⁾이라 하여 天人相應의 사상으로부터

- 1) 王冰. 黃帝內經靈樞. 臺北: 臺灣中華書局版. 1972. p.81, 144
- 2) 王冰. 黃帝內經素問. 臺北: 臺灣中華書局版. 1972. 『調經論』“五臟之道 皆出於經隧 以行血氣 血氣不和 百病乃變化而生 是故守經隧焉.”
- 3) 李挺. 原本編註醫學入門內集卷一. 서울: 大成文化社. 1981. p.259.
- 4) 『靈樞·經別』“十二經脈者此五臟六腑之所以應天道 夫十二經脈者人之所以生病之所以成人之所以治病之所以起學之所始工之所止也”. “學之所始, 工之所之也, 粗之所易, 上之所難也.”
- 5) 張介賓. 類經. 서울: 大成文化社. 1982. p.157.
- 6) 郭靄春. 中國鍼灸叢萃. 湖南省: 湖南科學技術出版社出版. 1987. pp.1-17.
- 7) 韓長庚. 易學原論. 서울: 杏林書院. 1954. p.6
- 8)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 上卷.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325 『至真要大論』의 “本乎天者 天之氣也 本乎地者 地之氣也 天地合氣 六節分而萬物化生矣”에 대하여 “天之六氣 化生地之五行... 五行本乎天 本乎天者 天之氣也 六氣本乎地 本乎之者 地之氣也 天數五, 地數六 天之六氣應乎十二支 原爲地數也 天地合氣 則六節分 五行列 而萬物由此化生矣”라고 주석하였다.
- 9) 『素問氣交變大論』“本氣位也 位天者 天文也, 位地者, 地理也, 通於人氣變化者, 人事也.”
- 10) “經脈十二者 外合於十二經水而 內屬於五臟六腑--所以人參與天地相參也.”
- 11) 『素問陰陽別論』“四經應四時 十二從應十二月 十二月應十二脈”

유래된 것임을 알 수 있다.

『素問離合眞邪論』에서 하늘에는 二十八宿과 三百六十五도가 있고, 땅에는 十二經水가 있으며 사람에게에는 十二經脈이 있다. 天地의 기후가 온화하면 經水 역시 안정되고, 기후가 차가워서 땅이 얼면 經水가 얼게 되고, 기후가 더워 땅이 덥혀지면 經水가 끓어올라 외부로 흘러넘치고, 갑작스럽게 폭풍우가 몰아치면 經水 역시 거센 파도가 일고 용솨음친다고 하여 기상변화에 따른 經水의 변화에 기초하여 인체 생리병리를 설명함으로써 경맥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내경에서는 경맥의 형성과 생리병리현상을 자연계의 강물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실제로 인체의 穴名 중에서 건축물에 類比한 것 다음으로 氣海, 太溪, 水分, 太淵, 穴海 등과 같이 물과 관계된 穴名이 많이 나타난다¹²⁾. 五行의 相生相克의 원류이고, 易의 효시인 河圖와 洛書도 각각 伏羲와 夏禹 시대에 黃河와 洛水의 龍馬와 靈龜의 등(背)에서 유래한 것 등은 고대 역대 제왕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있어서 治水의 중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인체의 건강 역시 이러한 치수사상의 배경이 되는 十二經水에 기초하여 經絡의 주체가 되는 十二經脈을 설정하였다.¹³⁾

또한 道教¹⁴⁾의 사상도 經絡 이론의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道教 용어인 太乙, 太白, 靑靈, 靈道, 神門, 魄戶, 養老, 玉枕, 神藏, 崑崙, 神庭, 神闕, 紫宮, 玉堂 등이 經穴의 명칭으로 사용

되었는데, 몸을 나라로, 心을 君主로, 精氣를 民으로, 心을 天으로, 腎을 地로, 머리와 얼굴을 庭으로, 心을 下極, 赤城, 神門으로, 肺를 闕中으로, 배꼽 아래를 丹田으로, 小腸이 長城으로 명명된 것에서 쉽게 알 수 있다.¹⁵⁾ 또 經穴의 명칭으로 볼 때 건축물과 都市, 街路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즉 中府, 雲門, 天府, 地倉, 氣舍, 氣戶, 庫房, 膺窓, 滑肉門, 衝門……등은 도시 구조와 관련이 있고, 神庭, 神闕, 中庭, 玉堂, 紫宮 등은 도교적인 용어와 관련이 있어, 경혈 354혈 중에서 87혈(24%)로 가장 많이 차지한다.¹⁶⁾ 이처럼 精氣神를 주체로 삼은 道教는 동양의학의 이론과 경락이론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내용으로 經絡은 陰陽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고, 천인상응의 자연의 법칙에 기초하여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經絡은 治水에 바탕을 둔 經水를 類比하였고, 經氣는 물(水)에 비유되며, 經氣의 흐름은 經水와 하천, 바다의 흐름에 기초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경혈의 인식은 道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2) 經脈의 명칭과 순환개념

경락의 명칭과 순환개념은 기원전 168년에 埋葬되었고 그 이전의 의학적인 정황을 알 수 있는 馬王堆漢墓醫書인 『陰陽十一脈灸經』(이하 『陰陽』으로 간칭함)과 『足臂十一脈灸經』¹⁷⁾(이하 『足臂』로 간칭함)을 통하여 이해할 수 있다. 『

12) 吉元昭治, 都珖淳 譯. 道教와 不老長壽醫學. 서울: 열린책들. 1992. p.355.

13) 姜天奉. '易'啓蒙傳疑研究. 影印本. 서울: p.5

14) 道教와 不老長壽醫學. 前掲書. pp.17, 38. 道教는 道家, 陰陽五行, 醫學, 占星, 무속신앙 등을 수용하고 불교의 조직과 체제를 본 따 완성시켰는데 불로장생을 목적으로 한 주술적 경향이 강한 現世利益적인 종교이다.

15) 道教와 不老長壽醫學. 前掲書. pp.348, 356

16) 上掲書. pp. 355-356

17) 中國鍼灸叢萃. 前掲書. pp.1-17.

足臂』와 『陰陽』은 十一脈에 관한 기술로서 十一條의 名稱, 起始點, 終止點, 走行路線의 部位 및 治病과 生病을 言及하였다. 이는 『靈樞經脈篇』의 十二經脈의 내용과 매우 유사하나 다른 내용도 있고, 『經脈篇』에 비하여 간략화 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足臂』과 『陰陽』이 『靈樞經脈』으로 발전하는 초기단계의 경락학설임을 시사한다.

경맥의 순환개념은 肩脈을 제외한 『陰陽』의 十脈과 『足臂』의 十一脈은 그 유주 방향이 모두 向心性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경맥 유주의 초기 이론이 나무에 비유한 經絡樹¹⁸⁾ 이론에 의한 것이다. 『內經』에서는 胸→手, 手→頭胸, 頭胸→足, 足→頭胸으로 유주 방향이 완성되었으며, 이는 天地가 如環無端하게 終而復始한다는 陰陽五行的인 宇宙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向心性의 유주 방향은 『靈樞』에서도 나타나는데 『靈樞·本輸』에서 나타나는 五輸穴의 유주노선이 向心性이며, 『根結』¹⁹⁾에는 經絡의 根結을 논하여 經絡의 유주가 사지말단 부위에서 근원하여 軀幹으로 향하는 向心性을 볼 수 있다. 이는 뒤편에서 언급하는 統一 形化하는 經絡 본래의 작용에 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명칭은 기본적으로 手足과 陰陽을 구분하였는데, 手脈을 臂로 稱하였다. 脈의 수는 手厥陰(臂厥陰)이 缺乏된 『足臂』과 『陰陽』의 十一脈으로 되어 있다. 『足臂』의 경우 足の 足泰陽溫, 足少陽溫, 足陽明溫, 足少陰溫, 足泰陰溫, 足卷(厥)陰溫과 臂의 臂泰陽溫, 臂少陽溫, 臂陽明溫, 臂少陰溫, 臂泰陰溫의 十一脈이다. 또한 『陰陽』은 足の 鉅陽脈, 少陽脈, 陽明脈, 太陰脈, 厥

陰脈, 少陰脈과 手の 肩脈, 耳脈, 齒脈, 臂鉅陰脈, 臂少陰脈의 十一脈이었다. 특히 手三陽經을 齒脈(手陽明經), 肩脈(手太陽經), 耳脈(手少陽經)이라 하여 陰陽의 개념이 없는 소박한 해부학적 명칭으로 기록하였다. 이러한 帛書의 十一脈은 『內經』에 이르러 手少陰心經의 유주노선 및 經穴이 새로 추가되어 十二經脈으로 발전하였다. 郭霽春은 臂少陰脈(溫)을 心少陰之脈에 귀속시켰는데 이에 대해서는 많은 설²⁰⁾이 있으나 經絡에서 君主之官이며, 人身의 主宰者 역할을 하는 心을 心包가 대신하는 것으로 볼 때 내용상 臂少陰脈이 手厥陰心包經으로 되는 것이 합당하고, 手少陰心經의 유주노선 및 經穴이 『內經』에서 새로 추가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靈樞邪客』의 心은 견고하여 邪氣가 침범할 수 없는데 만약 心이 손상되어 神이 흩어지면 죽게 되며, 병사가 心에 있다는 것은 실제로 心包經에 있다고 한 것이나, 『靈樞本輸』에서 手少陰心經의 五輸穴은 없고, 心包經의 五輸穴이 대신하고 있으며, 手少陰脈의 유주노선과 經穴이 현재의 心包經과 일하며, 또 『靈樞九針十二原』에서도 心包의 原穴인 大陵穴을 心의 原穴로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볼 때 『內經』 이전에는 이름만 있었고, 실제로는 心包經의 原穴과 五輸穴 및 유주노선을 대신하였으며, 心의 經絡을 거론할 때에는 그 당시에 명칭이 없었던 현재의 心包經을 사용했고, 『內經』 시대에 이르러서야 手少陰經의 유주노선 및 經穴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足臂』과 『陰陽』의 臂少陰脈 유주노선이 『靈樞經脈』의 心手少陰之脈과 다르고 心主 手厥陰心包經과 유사한 것이 이에 부합되는 이

18) 王玉川. 運氣探秘. 北京: 華夏出版社. 1993. p.61.

19) 『靈樞·根結篇』“太陰根於隱白 結於大倉, 少陰根於龍泉 結於廉天...”

20) 金丁雨. 經絡學說을 통한 經脈病候에 對한 研究. 서울: 東國大學博士學位論, 1994. pp.9-10 ① 手厥陰心包經이 부족하다는 견해. ② 手太陰肺經이 부족하다는 견해. ③ 手少陰心經이 부족하다는 견해.

유이다.

한편 『足臂』과 『陰陽』은 『內經』과는 달리 十一脈으로 구성되어 있고, 4개의 脈 이외에는 臟腑가 연계되어 있지 않아 臟腑 표리관계가 배제되어 있고, 足 臂 耳 齒 肩 등 외부 기관과 연계되어 있다. 『陰陽』에서는 手足陰陽의 구분이 안 되어 있는 반면에 『足臂』에서는 『內經』시대의 경맥 형태를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즉 『陰陽』에서는 “大陰脈, 臂鋸陰脈…”이라 하여 三陰三陽의 초기 단계 용어를 사용하였고, 『足臂』에서는 “足太陰脈, 臂泰陰脈…”이라 하여 三陰三陽을 足臂의 位相에 따라 陰陽을 구분하였으며, 『內經』시대에 이르러 『靈樞寒熱病』에서는 “足太陰, 臂太陰”으로 표현되다가 『經脈』에 이르러 “肺手太陰之脈”이라 하여 手足에 따른 天地陰陽과 臟腑, 六經의 기본적인 경맥의 명칭이 체계화되었다.

臂太陰에서 “臂”가 “手”로 바뀐 것에 대해서 『足臂』에서는 經脈의 起始點이 手指 말단에 자리하고 있지 않은 것에 비하여 『內經』의 手經脈에는 起始點이 모두 手指 말단에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足臂』, 『陰陽』의 경맥 배열차서는 三陰三陽이 少에서 太로 이행되는 차서가 아닌 太에서 少로 이행하는 차서로 배열되어 있다. 즉 太陽→陽明→少陽→太陰→少陰→厥陰으로 되어 있다. 『內經』의 경맥 배열은 太陰→陽明⇒少陰→太陽⇒厥陰→少陽의 차서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배열 방법은 對待(→)와 三才(⇒)의 차서(뒷편에서 언급함)로 구성되어 있어 “如環無斷”하게 순환하는 경락 본래의 의미에 부합하기 때문에 온전한 경락체계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經脈에 대한 명칭에 있어서 『足臂』에서는 “溫”, 『陰陽』에서는 “脈”으로 명명하였으나 『內

經』에서는 “經脈”, “絡脈”, “脈” 등으로 표현하였다. 『靈樞經別』에서는 “手太陰”으로 명명하였고, 『靈樞經脈』에서는 “肺手太陰之脈”으로 명명하다가 晉代 王叔和의 『脈經』에 이르러 “經”이라 명명하였고,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경맥의 명칭은 唐代 孫思邈의 『千金要方』에서 체계화되었다.

이처럼 처음의 『足臂』과 『陰陽』의 경맥체계에서는 手足과 陰陽을 구분하였으나 臟腑의 명칭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向心性의 유주로 되어 있고, 三陰三陽의 차서는 太→少로 되어 있었다. 『內經』시기에 이르러 十二經脈과 臟腑의 배합이 완성되었고, 經絡의 배열 차서도 對待와 三才의 방식을 따르며, 구체적인 穴名이 제시되었다.

2. 經絡體系的 생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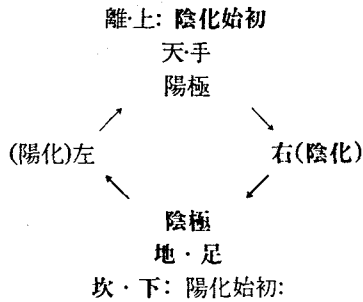
1) 手足經絡

(1) 手足經의 位象

經絡의 手足배합의 원리와 이치를 三才와 天地陰陽論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靈樞陰陽繫日月』에서는 “腰以上爲天 腰以下爲地 故天爲陽 地爲陰 故足之十二經脈 以應十二月 月生於水 故在下者爲陰 手之十指以應十日 日主火 故在上者爲陽”이라 하여 腰部를 중심으로 上은 天陽에 응하고, 下는 地陰에 부합하며 手足經絡에서 手는 天을 取象하고 足은 地를 取象하였다. 또 陰陽經의 순환기준이 되는 手足에 따른 경맥의 유주방향에 대해서 陸²¹⁾은 “如將雙手 上拳則所有的陰經 皆向上行 所有的陽經 都何不行 只要記住 ‘陰升陽降’四字則 十二經脈的走向 即可全部掌握”이라 하여 陰經은 上升하여 天에 응하고, 陽經은 下降하여 地에 상응한다는 법칙을 제시하였

21) 陸瘦燕. 陸瘦燕鍼灸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p.95.

<表. 1> 陰陽의 變化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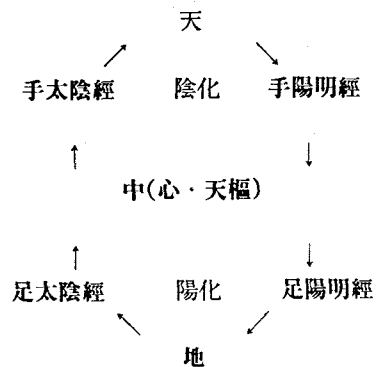
다. 즉 양손을 위로 치켜든 體位로 설정하여 上肢의 手部는 天에 응하고, 軀幹은 人에 응하고, 下肢의 足部는 地에 응하는 三才論에 부합한다. 또한 手足經絡의 六氣의 變化원리와 특성에 따라서 手에는 肺 心 心包의 陰經과 大腸 小腸 三焦(陽經)를 배속하고; 足에는 肝 脾 腎의 陰經과 膽 胃 膀胱의 陽經을 배속하였는데, 天에 응하여 陰化下降 작용을 하는 臟腑는 手, 地에 應하여 陽化上升 작용을 하는 臟腑는 足を 배속시켰음을 알 수 있다.

(2) 手、足經의 經氣運行과 氣化

小宇宙인 人身은 天地陰陽의 變化법칙에 상응하는데 經絡에 있어서도 經氣의 陰陽變化를 아래의 그림으로 설명이 가능하며, 경락작용을 이해하기 위해 上下左右에 따른 음양기화를 太極圖에 대응시켜 고찰해 보고자 한다.

上下左右의 음양기화는 下部는 陰이 極하면서 陽이 始生하는 곳으로 地에 응하고, 上部는 陽이 極하면서 陰이 始生하는 곳으로 天에 상응한다. 左側은 上升하여 陽化하고, 右側은 下降하여 陰化한다<表. 1>. 이에 따르면 좌측은 陽에 응하여 上升하는데 陰經絡이면서 陽化하고, 右側은 陰에 응하여 下降하는데 陽經絡이면서 陰化한다. 즉 手經絡은 하늘과 상응하므로 手陰經은 陽이 극에 이르는 經이고, 手陽經은 陰化가 시

<表. 2> 太陰—陽明經



작되는 經이고, 足經絡은 땅과 상응하므로 足陽經은 陰이 極에 이르는 經이고, 足陰經은 陽化가 시작되는 經絡이라 할수 있다.

이러한 음양기화의 순환개념에 기초하여 太陰-陽明, 少陰-太陽, 厥陰-少陽의 六經의 표리에 의한 陰陽經의 배합과 經絡의 手足 배합에 대한 의미와 원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六經의 표리 중 太陰-陽明經을 예로 들어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

<表. 2>에서와 같이 五臟은 心이 중심이 되고, 인체는 天樞가 중심이 되는데, 이러한 중심을 기준으로 하여 위쪽은 手經絡이 天에 응하여 陰化氣化하고, 아래쪽은 足經絡이 地에 응하여 陽化氣化한다. 陽經絡은 天인 手에서 始生하여 地의 足으로 운행하고, 陰經絡은 地의 足에서 始生하여 天의 手로 운행하는 순환체계를 가지는데 이는 뒷편에서 거론하는 六氣의 本末작용과 상응한다. 즉 足太陰脾經은 地에 응하여 陽化가 始生하고 手太陰肺經에서 天에 응하여 陰化 氣化하며, 手陽明大腸經은 天에 응하여 陰化가 始生하고 足陽明胃經에서 陰化가 극에 달하고 地에 응하여 陽化氣化한다. 다시 말하면 天에서는 手太陰經 → 手陽明經으로 변화되어 가는 陽中之陰化의 작용이 발휘되고, 地에서는 足陽明經 → 足太陰經으로 변화되어 가는 陰中

之陽化의 기화가 발휘된다.²²⁾

이는 자연기화의 법칙에 따라 하늘에서는 땅에서 상승한 수증기를 응고시켜 구름과 비를 만들어 다시 땅으로 내려 보내고, 땅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雨露를 太陽의 복사열로 인하여 다시 수증기로 氣化하여 하늘로 상승시키는 것과 같은 원리로 자연계의 대류현상인 水升火降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變化의 原則인 太極圖의 흐름에 상응하는 이치이다.

이상의 내용으로 경락에서의 六經과 手足의 배합은 우주 음양기화의 순환개념을 인체의 기순환에 대응시킨 것이며, 手의 陰陽經은 天의 陰陽作用(陽中之陰陽)으로 볼 수 있고, 足의 陰陽經은 地의 陰陽作用(陰中之陰陽)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經絡과 運氣

(1) 經絡의 운기배속

한의학에서 人身을 小天地로 인식하고 자연계의 변화규율이 곧 인체의 변화규율이라는 天人相應의 사상에 입각하여 인체의 생리병리를 논하였다.

五運과 六氣는 만물이 생성·변화하는 법칙이며, 소우주인 인체 또한 五行(五運)에 응하는 臟腑와 六氣(六經)에 응하는 經絡體系에 의한 생리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자연계에서 六氣의 생성은 五運에 근거하는 것처럼²³⁾ 인체에서는 五臟(臟腑)이 經氣를 생성하여 생리병리적인 현상

이 발현된다. 따라서 장부의 氣血의 흐름은 運氣의 이론에 기초하여 그 변화를 설명할 수 있으며, 五行과 상응하는 臟腑와 六氣와 상응하는 六經에 입각하여 臟腑經絡의 형성과 경기의 흐름을 인식할 수 있다. 臟腑와 經絡의 관계에 대해서 東醫寶鑑²⁴⁾에서는 “經絡爲標 臟腑爲本 如 太陽經爲標 膀胱爲本”이라 하여 經絡과 臟腑의 관계를 標本으로 보았다.

天干에서 五行의 배치는 甲乙木, 丙丁火, 戊己土, 庚辛金, 壬癸水이며 이는 天干의 体이다. 五運은 五行이 운행하는 변화의 법칙과 象으로 甲己合化土, 乙庚合金, 丙辛合化水, 丁壬合化木, 戊癸合化火로 변화한다. 土運을 예로 들면 甲은 陽木이고, 己는 陰土로 木克土하는 象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 같이 五運은 相克對化작용으로 六氣를 생성한다.²⁵⁾ 또한 五運과 六氣의 관계를 張²⁶⁾은 “熱極則生火也, 燥則剛勁 金氣所生也, 寒氣淫潤 其化爲水, 濕潤則土氣王 萬物生, 風動則木榮也”으로 그 유기적 통일성을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자연계 五運의 변화에 의한 六氣의 발현은 인체 經絡의 六經과 臟腑의 배합에 의한 經氣의 조화와 변화의 원리를 설명하는 방법론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즉 五運이 氣化하여 六氣를 발현하는 자연계의 변화원리는 인체에서 六經의 對化作用에 상응하는 臟腑의 氣化作用을 이해하는 이론적 근거와 방법론으로서 그 의의가 있다.

한편 天干과 地支는 우주변화를 설명하는 부

22) 『素問·天元氣大論』“寒暑燥濕風火 天地陰陽也 三陰三陽上奉之 木火土金水 地之陰陽也, 生長化收藏下應之, 天以陽生陰長, 地以陽殺陰藏. 天有陰陽, 地亦有陰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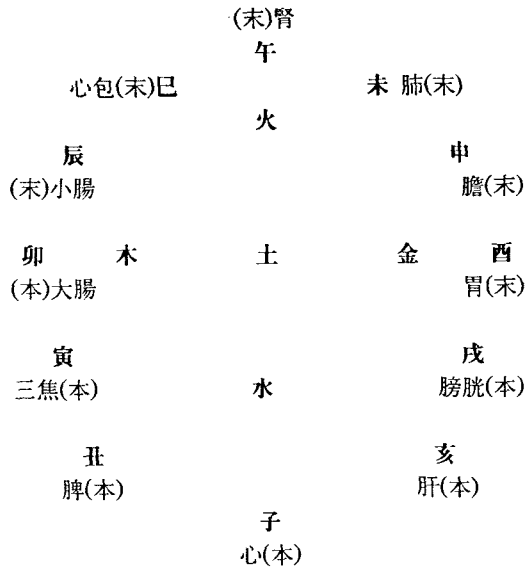
23) 黃元御醫書十一種 上卷. 前揭書. p.325. “天之六氣 化生地之五行…五行本乎天 本乎天者 天之氣也 六氣本乎地 本乎地者 地之氣也 天數五, 地數六 天之六氣應乎十二支 原爲地數也 天地合氣 則六節分 五行列而萬物由此化生矣.”

24) 許俊.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81. p.379.

25) 韓東錫. 宇宙變化의 原理. 서울: 杏林出版社. 1980. pp.89-92.

26) 張介賓. 原本類經. 서울: 大成文化社. 1982. pp.49-51

<表. 3> 五運六氣圖



호로서 十干' 十二支의 臟腑배속에 기초하여²⁷⁾ 臟腑와 六經으로 구성된 經絡의 생리의 이론적인 원리를 干支配合에 따른 運氣理論을 통하여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에서 六氣의 本末에 따라 十二經絡을 배속한 五運六氣圖는 韓²⁸⁾의 五行變極圖에 五行圖를 합한 것으로 十二支의 本末에 十二經絡을 배합하여 三陰三陽(六經)의 기화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즉 丑는 本土이고, 未는 末土인데 丑에서부터 寅' 卯' 辰' 巳' 午는 丑土가 水를 沍하면서 발전하는 과정이지만 일단 未에 이르게 되면 水를 生하기 시작하며, 또한 火의 本은 子이고, 午는 火末로서 子火는 金을 沍하면서 火로 발전하지만 午에 이르게 되면 다시 金을 生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土極生水, 火極生金하는 變極의 원

리이다.

경락을 지배하는 經氣도 이와 같은 원리를 따르기 때문에 같은 太陰之氣라도 足太陰脾經과 手太陰肺經을 각기 다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經氣의 생성과 변화를 파악하는 원리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또한 十二支의 配屬變化를 이해함으로써 六經의 본질을 더욱 잘 파악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本末은 經氣의 始生과 極盛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卯酉陽明燥金의 氣에 있어서 陽明之氣가 卯에서 生하기 시작하여 酉에서 極盛하고 水를 生하기 시작한다는 의미이다. 陽明之氣가 本인 大腸經에서 生하여 末인 胃經에서 극성하고, 太陰之氣는 本인 脾經에서 生하여 末인 肺經에서 극성하고, 少陰之氣는 本인 心經에서 生하여 末인 腎經에서 극성하고, 太陽之氣는 本인 膀胱經에서 生하여 末인 小腸經에서 극성하고, 厥陰之氣는 本인 肝經에서 生하여 末인 心包經에서 극성하고, 少陽之氣는 本인 三焦經에서 生하여 末인 膽經에서 極盛한다. 이는 六氣가 五行變極圖의 本末理論에 입각하여 발현하는 經絡現象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臟腑를 五運으로 설명하고, 經氣를 六氣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며, 十二支로 배합된 子午少陰君火, 丑未太陰濕土, 寅申少陽相火, 卯酉陽明燥金, 辰戌太陽寒水, 巳亥厥陰風木의 六氣를 이해할 수 있으며, 六經의 氣化를 중심으로 臟腑가 氣化하는 현상을 총괄한 것을 經絡이라 할 수 있다.

한편 黃²⁹⁾은 本과 末의 經絡을 臟腑와 연계시켜 臟腑의 五行과 六經의 특성이 일치(足太陰脾

27) 洪元植.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4. p.218

28) 韓東錫. 前掲書. p.70 “土極生數, 水極生火, 火極生金, 金極生木, 木極生土라고 하여 이것은 變極原理이다. 여기에서 極은 極을 위한 極이 아니고 極의 極點에 이르러서는 다시 生하는 운동을 하기위한 極이다. 따라서 五行相克의 목적은 極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生에 있는 것이다.”

29) 黃元御醫書十一種. 前掲書. “經十二 司化者六經, 從化者六經, 從化者 不司氣化, 總而司化者爲主……”

經)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手太陰肺經) 것에 따라 “司化經”과 “從化經”이라 명명하여 六經氣化의 특성을 설명하였다.

경락현상의 주체가 되는 臟腑와 經氣의 발현은 五運과 六氣의 운기이론으로 통합된다. 運氣는 五行의 원리인 天干과 六氣의 원리인 地支가 결합된 것으로 干은 줄기를 의미하고 支는 가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五行과 六氣의 主從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³⁰⁾. 즉 五臟六腑에 따른 六經의 배합에 있어서 臟腑는 六氣(經氣)의 調節者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經絡體系의 原理에 접근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이론이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十二支는 臟腑와 六經에 대응하며, 六經氣化의 變極에 따른 臟腑와 經氣變化의 原理를 이해하는 객관적 방법론으로서 그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2) 經絡의 氣화와 五運

『素問·藏氣法時論』에서는 “五行은 木 火 土 金 水이다. 五行에는 盛衰生克의 변화가 있는데 이러한 변화를 인체의 五臟之氣에 배합함으로써 환자의 生死를 추측하고 치료의 成敗를 판단할 수 있으며, 또 이로부터 五臟精氣의 盛衰와 질병의 輕重 및 死亡 시기를 확정할 수 있다”고 하여 자연법칙인 五行을 臟腑와 연계하여 생리병리적으로 발현하는 기전을 설명하였다. 韓³¹⁾은 “五行은 萬物을 생하는 법칙이고, 五運은 宇宙를 형성할 수 있는데에서만 일어나는 變化現象의 法則이다”고 하였고, 『素問·天元氣大論』에서는 “五運은 하늘에서 쉼 없이 운행하면

서 眞靈의 氣를 포산하며 만물이 성장하는 근원(大地)을 다스린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五運의 기화작용에 의한 六氣의 생성변화는 臟腑와 經氣의 작용에 있어서 臟腑가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작용을 함으로써 經氣를 생성시키고 調節 變化시킨다고 볼 수 있다. 이에 五運의 변화원리에 따른 六經의 작용을 臟腑氣化의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干支의 배합에 의한 五行과 五運의 변화원리를 보면 甲乙은 木, 丙丁은 火, 戊己는 土, 庚辛은 金, 壬癸는 水로 오행의 배합이 되고, 天干의 변화인 五運은 甲己合化土, 乙庚合化金, 丙辛合化水, 丁壬合化木, 戊癸合化火의 원리에 따른다. 즉 甲乙의 배합을 甲은 陽木으로 兄이 되고, 乙은 陰木으로 妹가 되어 兄妹相合이라고 하고, 甲己배합에 의한 五運은 兄이 되는 陽木과 妹가 되는 陰土의 서로 다른 五行이 陰陽相合을 하여 생한 것으로 陰陽이 조화되고 서로 傷하지 않아 이를 夫婦相合이라고 한다. 또한 五行에서 木은 甲乙의 氣象이고, 木運은 丁壬이 合化 對待하는 氣象이; 火는 丙丁의 氣象이며, 火運은 戊癸가 對待하는 氣象이고; 土 金 水도 같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이것이 經絡에서 臟腑의 기화를 이해하는 관건이다. 이처럼 五運은 五行이 對化作用³²⁾을 통해서 變化運行해 나가는 것으로 그 원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五行의 夫婦相合으로 된 五運의 構成은 서로 다른 五行의 對化作用에 의해 생한 것인데 이는 상대방으로부터 自身이 필요로 하여 부족한 氣運을 充電받거나 充電시키는 것을 말하며, 女性

30) 李重宰. 기란? 물과빛과소리. 서울: 明文堂. 1998. p.4 “天은 하늘로서 줄기요 地는 땅으로서 가지를 뜻한다. 干支란 天地로서 하늘과 땅을 의미한다. 그냥 하늘과 땅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은 줄기로서 만물의 근본이며 땅은 가지로서 만물의 성장을 촉진하는 바탕을 뜻한다.”

31) 宇宙變化의 原理. 前掲書. p.74.

32) 張介賓(김은하역). 國譯類經圖翼運氣編. 서울: 一中社. 1992. p.179 “正化對化圖說”

은 男性에게 男性은 女性에게 相對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比喻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甲乙은 五行中 木에 屬하여 生하는 氣運만을 지니고 있으므로 形體를 지닐 수 없어나 甲三木이 씩을 띄워 生長하기 시작하여 乙八木에 이르게 되면 庚九金의 對化作用에 의해 딱딱하게 硬化되어 形體를 維持할 수 있게 된다. 즉 여기서 甲木이 뿌리를 내리고, 生長할 수 있는 것은 甲己合化土로 己陽土의 對化하는 도움을 받는 象이고, 乙의 成形작용은 乙庚合金로 庚陽金의 對化하는 도움을 받아 가능한 것이다.

臟腑間의 生克하는 원리 또한 이러한 對化作用에 의존하고 있는데, 肺에서 宣發하는 木氣가 나타나고, 肝에서 藏血하는 金의 對化작용이 발현된다. 五味를 예로 들면 酸木 苦火 甘土 辛金 鹹水의 배속은 五味가 五臟에 미치는 對化作用에 의한 것으로 식초의 收斂作用은 金이 木을 克하는 象이고, 肝에 작용하는 것은 用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수렴하는 金의 對化作用을 받기 때문에 木氣가 정상으로 발휘될 수 있고, 甲乙木으로서의 酸味를 이해할 수 있다. 이는 酸味 뿐만 아니라 五味 모두가 이와 같은 논리로 설명이 가능하다.³³⁾

對化作用은 十干, 十二支로 설명되고, 對待作用은 상반되는 두 氣(中氣)가 交互하여 새로운 것을 낳아 무궁하게 생성되어 가는 것이다. 즉 만물은 對待的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 象이 二이고 受容하는 작용이 있고, 만물의 운행은 三才의 법칙으로 발전하며 그 象이 三이고 推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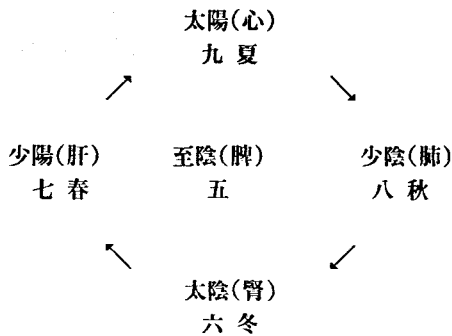
따라서 天地의 변화에서 天은 運행을 상징하므로 三才가 작용하여 相生의 이치에 따르고, 地는 成形을 상징하므로 對待의 작용으로 相克의 이치에 따른다. 그러므로 運행을 상징하는 天의 법칙인 五運의 변화는 臟腑의 五行에 비유할 수 있고, 成形을 상징하는 地의 법칙인 六氣의 對待는 六經의 對대작용에 대응시킬 수 있다. 또한 經絡의 三陰三陽의 太陰合陽明, 少陰合太陽, 厥陰合少陽의 六合 六氣의 對待作用을 반영한 것이다.

四時五行에 따른 臟腑의 배속과 생리적인 발현을 살펴보면 象數學에서 七은 陽이 生長하기 시작하는 시발점이므로 少陽(==)이 되어 봄에 배속되고, 九는 陽의 生長이 끝나므로 老陽 즉 太陽(==)이 되어 여름에 배속되고, 八은 陰이 收斂되기 시작하므로 少陰(==)이 되어 가을에 배속되고, 少陰이 더욱 收縮하면 六이 되는데 六을 老陰 즉 太陰(==)이라 하여 겨울에 배속된다. 즉 肝의 특성과 작용은 봄과 七數에 비유되고, 心의 특성과 작용은 여름과 九數에 비유되고, 肺의 특성과 작용은 가을과 八數에 비유되고, 腎의 작용과 특성은 겨울과 六數에 비유할 수 있다.³⁴⁾ 이를 生長과정의 변화에 비유하여 內經에서 七, 八의 숫자를 男女가 成長하는 단계의 단위를 삼았다. 男女의 生長 단계로 보면 가을의 기운에 해당되는 女子는 少陰의 氣를 象하기 때문에 少陽의 숫자인 七을 만날 때에 陰陽이 交合하고, 봄의 기운에 해당되는 男子는 少陽의 氣를 象하기 때문에 少陰의 숫자인 八을 만날

33) 鄒澍(임진석역). 本經疏證下卷. 서울: 아티전. 1997. p.756. “鄒는 木火土金水의 本體는 작용할 때는 相剋的인 五行 특징을 발휘한다고 하였다. 즉 本草의 맛을 木火土金水로 분류 하였을 때 작용은 生長化收藏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相克에 해당하는 金, 木, 土, 水, 火, 土인 收, 藏, 生, 長, 化로 드러난다. 鄒는 『參同契』의 ‘五行相克 更爲父母’라는 설과 『素問』의 ‘承酒制 制則生化’ 설을 인용하여 ‘是故五行之體 以克爲用’이라고 밝혔다.”

34) 易學原論. 前揭書. p.229

<表. 4> 四時 四象과 五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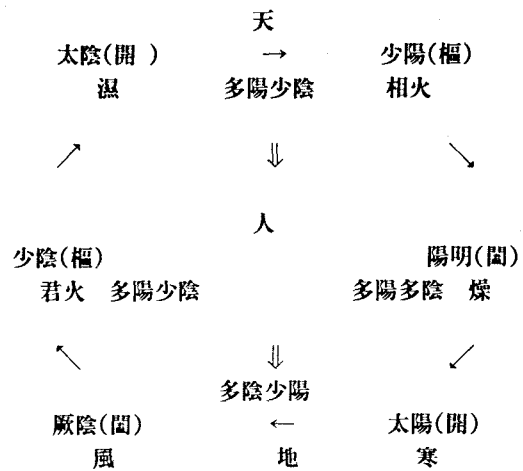
때 陰陽이 交合한다.³⁵⁾

이상으로 六氣를 생성 變化시키는 오운은 臟腑에 의해 經氣가 생성 變化한다는 經絡調節機轉의 이론적 근거가 되고, 五運의 生克에 따른 變化는 五臟의 생리병리현상으로 表출된다.

(3) 六經과 六氣

위에서는 五運을 통하여 經氣의 발현을 주재하는 장부의 역할에 대해서 논하였다. 다음은 經氣의 작용이 六經의 기화작용과 상응하는 것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일찍이 『周易』³⁶⁾에서 六氣에 대하여 거론하였으며, 六氣를 이해하려면 陰陽의 生長化收藏을 그림으로 표현한 太極圖에서 출발해야 한다. 古太極圖를 뒤집어 놓은 것이 伏犧 八卦圖이다. 太極變化圖는 『醫學入門』의 先天圖와 『類經圖翼』의 太虛圖와 같이 陰陽의 變化가 始生하여 生, 長, 化, 收, 藏하는 것이다. 太極圖에서는 一圓의 運動을 六段階로

<表. 5> 六氣의 變化圖



나누어서 一陰을 厥陰, 二陰을 少陰, 三陰을 太陰, 一陽을 少陽, 二陽을 陽明, 三陽을 太陽이라 하여 三陰三陽으로 명명하였고, 삼음삼양에 따라 一氣를 六氣로 나누어 설명한 것이 六氣運行圖이고, 이것의 象을 卦로 나타낸 것이 伏犧八卦이다.³⁷⁾

六氣와 六經의 배합은 厥陰風木, 少陰君火, 太陰濕土, 少陽相火, 陽明燥金, 太陽寒水로 구분되고, 그 기화는 太陽爲開, 陽明爲闔, 少陽爲樞, 太陰爲開, 厥陰爲闔, 少陰爲樞의 開 闔 樞로 특징지워 진다. 開闔樞의 기화에 대하여 王冰은 “開者 所以司動靜之氣, 闔者 所以執禁固之權, 樞者 所以主動轉之微也.”라 하였고; 張³⁸⁾은 “開闔者 如戶之扇, 樞者扉之轉柱也. 開主外出 闔主內入 樞主外內之間”이라 하였다. 이러한 開闔樞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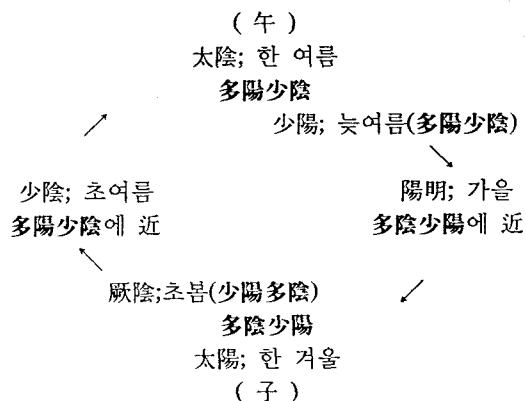
35) 『素問·上古天真論』 “女子七世腎氣盛齒更髮長(王冰注: 老陽之數極於九 少陽之數次於七 女子爲少陰之氣故 少陽數遇之明 陰陽氣化乃能生成 其形體故七世腎氣盛) 二七而天癸之任脈通衝脈盛月事以時下故有子……丈夫八世腎氣實髮長齒更(注: 老陰之數極於六 少陰之數 次於八 男子爲少陽之氣 故以少陰數合之 易繫辭曰天九地十 則其數也) 二八腎氣盛天癸至精氣溢 寫陰陽和故能有子 (注: 易繫辭曰 男女構精 萬物化生)……”.

36) 備旨具解 原本周易. 上海: 元貞書舍. p.1135. 繫辭傳 右第三章 “雷以動之 風以散之 雨以潤之”

37) 宇宙變化의 原理. 前掲書. p.153 “六氣運行圖” p.242 “(古)太極圖說” 참조.

38) 上掲書. p.111

<表. 6> 四時와 六氣의 配屬



의한 陰陽氣의 기화특성은 인체의 六經기화를 이해하는 관건이 되며, 六經의 對待를 地支와 연계하여 파악하면 丑未太陰濕土—卯酉陽明燥金—子午少陰君火—辰戌太陽寒水—巳亥厥陰風木—寅申少陽相火로 이는 經絡이 太陰經-陽明經, 少陰經-太陽經, 厥陰經-少陽經의 對待관계로 장부의 기화를 조절하는 원리가 된다.

<表. 5>는 太極圖³⁹⁾의 운행과 일치하고 六氣가 변화하는 순서이다. 이것의 반대 순서가 바로 傷寒의 육경전변 규율이며⁴⁰⁾ 外邪가 침범하는 경로와 병증의 전변순서를 경락현상으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三才理論에 따른 六氣의 陰陽多少를 인체에 응용한 것이 바로 經氣의 氣血多少說이다.

그러므로 經氣의 특성과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六氣의 변화원리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六氣를 탐색하여 經絡六經의 構成體系를 설명하고자 한다.

① 六氣의 正化 對化

三陰三陽의 六氣는 十二支에 따라 正化와 對化로 구분되며 正化는 生數(一, 二, 三, 四, 五)와 實을 의미하며 六氣의 本氣가 되도, 對化는 成數(六, 七, 八, 九, 十)와 虛를 의미하며 그 對衝하는 작용을 받아 氣가 변화한다. 예를 들면 十二支의 寅卯辰은 東方에 위치하고; 巳午未는 南方; 申酉戌은 西方; 亥子丑는 北方에 각각 위치한다. 子午少陰君火에서 午는 正南方에 위치하는데 火의 方位이고 君火는 午에서 왕성하므로 君火의 正化는 午에 있고, 午에 對衝되는 위치는 子이므로 對化는 子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子午는 함께 少陰君火가 된다. 丑未太陰濕土에서도 未는 西南方이고 月建은 六月(長夏)의 土가 왕성한 시기에 해당하므로 太陰濕土의 正化는 未에 있고, 未에 對衝되는 곳은 丑이므로 太陰濕土의 對化는 丑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丑未는 太陰濕土에 속하게 된다. 寅申少陽相火에서도 寅이 東方木으로 木生火에 따라 相火의 正化는 寅이 되고, 對衝되는 곳은 申이므로 對化는 申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寅申은 少陽相火가 된다. 卯酉陽明燥金에서도 이상과 같은 원리로 酉가 西方으로 正化가 되고 卯가 對化가 되어 卯酉가 陽明燥金이 된다. 辰戌太陽寒水에서도 戌이 西北方으로 水의 正化가 되고, 辰이 對衝되는 곳으로 對化가 되어 辰戌이 太陽寒水가 된다. 巳亥厥陰風木도 亥의 위치는 北方으로 水生木에 따라 木은 亥에서 생겨나므로 正化가 되고, 亥의 對衝되는 곳은 巳로 對化

39) 安原田. 東洋學 이렇게한다. 서울: 대원출판사. 1989. p.181

宇宙變化의 原理, 前掲書 p.242. “太極道를 자세히 살펴보면 東北方의 丑에서 白圈이 시작하여서 未에 이르게 되면 東南의 表面으로 발전하던 陽은 이면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여서 戌의 부위에 이르게 되면 統一이 완성되고, 同時에 丑에서 일어날 陰을 養하게 되는 것이다.”

40) 『素問熱論』 “傷寒一日 巨陽受之 二日陽明受之……”.

는 巳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巳亥가 厥陰風木이 된다.

이상에서 六經의 正化와 對化는 肺와 脾가 太陰濕土, 胃와 大腸이 陽明燥金, 腎과 心이 少陰君火, 小腸과 膀胱이 太陽寒水, 肝과 心包가 厥陰風木, 膽과 三焦가 少陽相火에 배속됨으로서 臟腑—六氣—三陰三陽의 구조 속에서 六經의 調節機制를 표현함을 알 수 있다.

② 六經의 氣血多少

氣血多少는 『素問·血氣形志』에서 “夫人之常數 太陽常多血少氣……太陰常多氣少血”라 하였다. 六經의 陰陽氣血은 마치 凹凸과 같이 남음과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상합한다. 이는 三陰三陽의 變化가 각각의 시점마다 陰陽의 多少가 달라지는 自然法則에 따른 것으로, 經絡의 氣血多少說이다.

天地의 陰陽은 人身의 陰陽이고, 天地의 水火는 人身의 血氣와 같고…陰陽이 生化하는 법칙은 天人이 合一되는 법칙이므로⁴¹⁾ 三陰三陽의 六氣에 각기 陰陽의 多少가 있듯이 人身의 經絡에도 經氣의 氣血多少가 있게 된다. 즉 계절의 시간성 가운데 나타나는 陰陽의 편차에 따라 六經의 陰陽多少인 氣血多少를 이해해야 할 것이다.

天地之間에 陰과 陽이 뒤섞여 있는 상황에서 陰陽이 완전한 균형을 유지할 수도 있지만 陰과 陽에 편차가 생기게 되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다. 따라서 陰陽 가운데 한쪽으로 편성되는 특성을 지니게 되는데 이에 따라 陰陽의 主從關係가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인체 六氣의 陰陽標本 관계이며 氣血多少가 발현되는 것이

다. 그러나 胃經만은 예외이다. 足陽明胃經은 五臟六腑之海로 氣血이 왕성하므로 多陽多陰하여 多血多氣한다. 그러나 陽明大腸經은 위의 이론에 따라 太陰肺經과 雌雄이 상합하는 관계가 되어 夫婦가 相合하므로 多血少氣하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陽明之氣의 속성이 陰陽 모두에 盛하지만 그 本氣는 秋氣에 속하는 多陰少陽의 특성을 가진 氣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경의 六經의 氣血多少는 『素問·血氣形志編』의 설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六經의 특성을 사계절이 변화하는 시간적인 관점으로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이처럼 經絡에서의 氣血多少는 자연현상인 六氣의 陰陽多少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원리를 六氣가 變化하는 법칙과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4) 臟腑經絡의 運氣相合

① 運氣와 臟腑經絡

黃⁴²⁾은 “天에는 六氣가 있고 地에는 五行있다. 六氣는 風 熱 暑 濕 燥 寒이고, 五行은 木 火 土 金 水이다. 天에서 象을 이루고, 地에서는 形體를 갖추는데 六氣는 五行의 魂(用)이고, 五行은 六氣의 魄(體)이 된다. 사람은 天地의 中氣로 天氣를 받아 六腑를 生成하고, 地氣를 받아 五臟을 生成하여 六氣五行이 모두 몸에 갖추어지게 된다”고 하였다. 곧 五行과 六氣의 인체 五臟과 六腑를 이해하는 이론적 근거가 됨을 제시하였다.

經脈은 地의 五行에서 生하여 天의 六氣와 상응한다. 따라서 經脈은 먼저 五臟의 五行에 배합된 후에 六腑를 논하였다.⁴³⁾ 臟腑와 經絡의 관

41) 章虛谷. 醫門捧喝. 臺北: 自由出版社. 1982. p.36

42) 黃元御醫書十一種·下卷. 前揭書. p.27

43) 『素問·金匱真言論』, “肝心脾肺腎五臟皆爲陰 膽胃大腸小腸膀胱三焦六腑皆爲陽”. 注: 經脈生於地之五行 而相應天之六氣 故凡論經脈先配合五臟五行 而後論及於六腑”

계에 대해서 東醫寶鑑⁴⁴⁾에서는 “經絡爲標 臟腑爲本 如太陽經爲標 膀胱爲本”이라 하여 經絡과 臟腑의 관계를 標本으로 보았다.

韓⁴⁵⁾은 五運과 六氣의 관계를 臟腑와 六經, 五臟과 六腑와의 관계로 대응시켜 臟腑는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조절자인 五運으로 해석하였고, 六經는 수동적이고 타율적을 변화하여 만물을 形化하는 六氣로 해석하였다.

五運·六氣의 축은 五臟·六腑, 臟腑·經絡의 배합의 원칙으로서 五運의 氣象으로 臟腑의 理致를 알 수 있으며, 五運이 통괄하는 六氣로 六經의 기화를 추론할 수 있다. 즉 五運과 六氣의 상합 원리는 臟腑와 經絡이 배합하는 經絡體系의 기본원리로서 의의를 지니고 있다.

② 河圖와 洛書

ㄱ) 河圖·洛書와 臟腑·經絡

자연의 변화법칙이고 易의 기초가 되는 相生·分化의 법칙인 河圖와 相克·통일의 법칙인 洛書의 生克之道를 五運과 六氣로 해석하여 經絡의 氣化體系에 접근하기로 한다. 河圖는 黃河에서 나온 그림이고 洛書는 洛水에서 나온 글이며 聖人이 易을 지을 때 이것을 법칙으로 삼았다.⁴⁶⁾ 河圖에서 내측의 一, 二, 三, 四, 五數는 만물을 生成하는 生數가 되고, 외측의 二, 四, 六, 八, 十數는 만상의 형체를 이루는 成數에 속한다. 즉 천이 一을 生하면 地는 六數를 成하며,

地가 二를 生하면 天은 七數를 成하고, 天이 三을 生하면 地는 八을 成하고, 地가 四를 生하면 天은 九를 成하고, 天이 五를 生하면 地는 十을 成한다. 이와 같이 肝에서 木氣를 生하면 六經인 肝經에서 風을 成하고, 脾에서 土氣를 生하면 脾經에서 濕을 成하는 巴와 같이 運氣의 相合은 장부경락의 六氣五行이 기화 배합하는 이치이다.

河圖는 伏犧圖의 準則이 되고, 洛書는 文王圖의 準則이 되며, 伏犧圖는 陰陽의 조화를 상징하고, 文王圖는 陽氣가 발현하는 象이다⁴⁷⁾. 河圖는 生數로서 成數를 통솔하여 陰陽의 生成에 따라 相合하고, 洛書는 奇數로서 偶數를 통솔하니 陰陽奇偶로 나뉘어 진다. 體는 靜하고 用은 動하는 河圖는 生成相合하므로 天·一·生數하는 北方에서 始動하여 相生하는 숫자를 따라 신묘하게 작용하고, 體는 動하고 用은 靜하는 洛書는 奇偶로 나뉘어 짐으로 하단 중앙에서 始動하여 逆數相克하는 對待 작용으로 행한다.⁴⁸⁾ 그러므로 “河圖는 시간적인 오행상생의 원리와 기후, 오행, 內情을 나타내고, 洛書는 공간적인 상극의 운동, 地勢, 四象, 外象에 해당 된다”⁴⁹⁾고 하여 五行을 河圖에, 六氣의 변화를 洛書에 비유하였다. 즉 生成分化하고 그 體가 圓이면서 시간적으로 體靜用動으로 변화하는 河圖는 臟腑의 臟·象이 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金火交易⁵⁰⁾에 따른 相克原理와 六合의 공간적인 개념으로 형

44) 東醫寶鑑. 前掲書. 1981. p.379

45) 宇宙變化의 原理. 前掲書. p.74

46) 啓蒙傳疑研究. 前掲書. p.5 “易大傳 河出圖, 洛出書, 聖人則之”.

47) 易學原論. 前掲書. p.235

48) 啓蒙傳疑研究. 前掲書. p.10, 15

49) 東洋學 이렇게 한다. 前掲書. p.313

韓圭性. 易學原理講話. 서울: 藝文志. 1997. pp.116-118

50) 宇宙變化의 原理. 前掲書. p.158 “金火交易은 본시 洛書에서 그 象이 나타났었다. 洛書에서는 四九金이 南方에 와 있고 二七火가 西方에 가있는 것은 金이 火(火)를 싸기위해 자리를 바꿔서 있는 것이다.”

성되어 있고 그 體가 方이면서 體動用靜으로 陰化成形하는 洛書는 六經의 생리작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五輸穴의 五行配合에 있어서 陰經은 井穴에 乙木을, 榮穴에 丁火, 腧穴에 己土, 經穴에 辛金, 合穴에 癸水를 배합하고, 陽經의 五輸穴은 井穴을 庚金에, 榮穴을 壬水에, 腧穴을 甲木에, 經穴을 丙火에, 合穴을 戊土에 배합된 것은 河圖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臟腑 陰陽經의 변화에 따른 五輸穴의 配合는 井穴이 乙庚合金, 榮穴이 丁壬合化木, 腧穴이 甲己合化土, 經穴이 丙辛合化水, 合穴이 戊癸合化火가 되어 金克木, 木克土, 土克水, 水克火, 火克金하는 相克原理에 따른다. 특히 五輸穴이 金運에서 起始하는 것은 — 뒷편에서 거론할 肺의 경락이 起始經이 되는 것은 — 金火交易에 의한 相克으로 經絡作用이 陰化成形하는 洛書의 이치에 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⁵¹⁾

결론적으로 河圖가 陽進하면서 生化하는 것은 內情인 五臟의 臟象이 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洛書가 陰退하면서 相克하는 것은 外象인 經絡의 — 太陰과 陽明, 少陽과 厥陰, 太陽과 少陰으로 구성된 六經의 — 변화로 볼 수 있다.

ㄴ) 象數와 臟腑經絡

河圖와 洛書는 象數學⁵²⁾이다.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十은 天地의 原數이며, 一' 三' 五' 七' 九는 天의 數이고 陽으로 生長, 盛大하는 작용이 있고, 二' 四' 六' 八' 十은 地의 數이고 陰으로 收斂, 縮小하는 작용

이 있다. 또한 一' 二' 三' 四' 五는 生數로 草木의 종자가 發芽할 때 까지와 胎兒가 출산하기 전까지 변화는 없고 발육만 있는 단계이고, 六' 七' 八' 九' 十은 成數로 幹莖支葉이 生長 收藏하거나 사람이 출생한 후에 生老病死하는 단계이다.

五行을 河圖의 數理로 설명하면 生數인 一' 二' 三' 四' 五는 五行의 體이면서 本性이 되고, 五의 中和' 土化 작용을 받은 成數인 六' 七' 八' 九' 十은 五行의 用으로 標가 되어 外象으로 발현한다. 즉 一六水에서 生數인 一은 水의 本性으로 만물의 근본이 되고, 透明' 貫通하는 성질이 있으며, 成數인 六은 表로 발현되어 陰的으로 柔順' 濕潤하는 성질이 있다. 二七火에서 二는 火의 本性으로 閉塞' 凝結하는 陰의 성질이 있는 반면 그 標인 七은 陽에 응하여 發散' 上炎하는 성질이 있다. 三八木, 四九金 또한 이와 같은 작용을 한다.⁵³⁾ 이것이 바로 五行의 象數가 標' 本과 體' 用으로 발휘되는 것이다. 이러한 水火의 모순된 體用⁵⁴⁾은 水升火降하는 생리적인 기전에도 작용한다.

이러한 이론으로 臟腑의 생리적인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一六水의 이치로 水의 臟인 腎臟, 腎臟과 膀胱의 특성을 설명하면, 腎臟은 一陽의 本性을 가지고 있으면서 六은 外象으로 발현하므로 腎臟이 少陰經에 배속되어 一陽의 本性和 六陰의 外象을 시사하고 있으며, 腎臟과 膀胱에서 腎臟은 生數인 一이 작용하고, 膀胱은 成數인 六이 작용하여 陰經의 手少陰心

51) 黃元御醫書十一種. 前揭書. p.664 『六十四難』“陰井乙木,陽井庚金……”

52) 易學原論. 前揭書. p.226

53) 易學原理講話. 前揭書. pp.85-97 “生成數에서 生이란말은 生命의 本이란 뜻이고 成은 生命의 形象을 이룬다는 뜻이다....生數가 內라면 成數는 外이며 生數가 無形이라면 成數는 有形이고 生數가 靜이라면 成數는 動이며 生數가 主가 되면 成數는 客이 된다..”

54) 啓蒙傳疑研究. 前揭書. p.14 “夫水者 體內明 質沈潛, 火者 體內暗 質熾烈.”

經과 陽經의 足太陽膀胱經의 기화체계가 형성된다.

河圖에서 유래된 象數學에서 天數인 一, 三, 五, 七, 九의 中數는 五이고 地數인 二, 四, 六, 八, 十의 中數는 六이다. 五와 六은 五行과 六氣에 따른 天干과 地支이고, 인체에서는 五臟과 六腑, 五臟과 六經에 대응한다. 또 臟腑에는 陰陽의 양면이 있으니 五臟의 體는 陰이지만 用은 陽이므로 그 數가 五가 되고, 六腑는 體가 陽이지만 그 用이 陰이기 때문에 그 數가 六이 된다.

한편 天數인 五도 陰陽으로 분화되기 때문에 그 數가 十이 되어 天의 十干이 되고, 地數인 六도 陰陽으로 분화되기 때문에 그 數가 十二가 되어 地의 十二支가 된다. 인체에 있어서는 臟腑가 天干에 상응하고 六經의 經絡이 地支에 부합하여 기화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3) 經絡과 八卦

伏羲八卦圖와 文王八卦圖에서 乾(☰) 兌(☱) 離(☲) 震(☳) 巽(☴) 坎(☵) 艮(☶) 坤(☷) 八卦의 대대작용을 통하여 經氣의 三合과 그 특성 및 經絡의 生理를 살펴보기로 한다.

八卦象은 天地, 雷風, 水火, 山澤 등의 象을 취한 것으로, 雷風은 氣로서 天의 작용을 행하고, 水火는 精으로서 日月의 작용을 행하고, 山澤은 形으로서 地의 작용을 행한다. 地와 山이 같고, 水와 澤이 같지만 둘은 구분된다. 地는 만물을 포용하고 생성하는 大地를 말하고, 山은 지세의 高低이고, 敦實하여 만물이 여기에서 생한다. 澤은 水精이 凝結되어 灌溉하고, 津液을 滋益하여 貯水하는 것을 말하고, 水는 上의 雲雨와 下의

江海를 행하는 水를 말한다.⁵⁵⁾

經絡의 經氣도 이러한 八卦의 象으로 대응시킬 수 있다. 陰陽에서 陰은 陰脈之海인 任脈에, 陽은 陽脈之海인 督脈에, 雷風에서 雷는 少陽之氣에, 風은 厥陰之氣에, 水는 太陽之氣에, 火는 少陰之氣에, 山은 陽明之氣에, 澤은 太陰之氣에 대응하고 상호 對待의으로 변화하는 象을 내함하고 있다.

經氣와 상응하는 八卦의 對待作用⁵⁶⁾에 대하여 살펴보면 雷風은 相火와 厥陰經에 대응하는데, 雷氣는 收斂하여 陰이 되고, 空氣는 發散하여 陽이 되는데, 雷氣와 空氣는 상충하여 상반되고, 이 두 가지가 대기 중에 渾淪하여 相與 相合한다. 즉 震雷(☳)와 巽風(☴)의 卦象과 자연계의 우뢰와 바람의 특성은 인체의 相火之氣를 주관하는 少陽經과 風木之氣를 주관하는 厥陰經의 對待作用에 대응시킬 수 있다.

水火는 太陽과 少陰經에 대응하는데, 水는 潤下하여 陰이 되고, 火는 炎上하기 때문에 水火가 서로 克制하여 상반되고, 양자가 서로 의존하여 그 기능을 발휘하므로 상합한다. 두 개의 陰이 하나의 陽을 감싸고 있는 象인 坎水卦(☵)와 두 개의 陽이 하나의 陰을 감싸고 있는 象인 離火卦(☲)는 寒水之氣를 주관하는 太陽經과 君火之氣를 주관하는 少陰經의 대대관계로 대응시킬 수 있다.

山澤은 陽明과 太陰經에 대응하는데, 山은 止하고 靜하여 陰이 되고, 澤은 動하고 流하므로 陽이 된다. 山澤이 높고 낮은 곳에 각각 자리하고 있는 것은 相反되는 것이고, 山이 澤을 수용하고 澤이 山으로 상승하는 것은 相合하는 것이

55) 易學原論. 前揭書. p.6

56) 上揭書. p.21 對는 相反 相敵, 待는 相合 相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만물 각각의 개체 속에는 반드시 體와 用의 직능을 가진 두 가지의 작용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太陽과 大地 사이에 서로 向應하려는 求心力의 작용은 相合 相需하는 “待”이고, 서로 隔離하려는 遠心力의 작용은 相反 相敵하는 “對”이다.

다. 이와 같이 體와 用이 한편으로 상반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相合하는 것이 對待⁵⁷⁾이다.

이상과 같이 八卦의 對待 원리는 經絡의 標本中氣⁵⁸⁾에 따른 조절작용의 일환으로 兌卦의 澤에 대응하는 太陰과 艮卦의 山에 대응하는 陽明, 離卦의 火에 대응하는 少陰과 坎卦의 水에 대응하는 太陽, 巽卦의 風에 대응하는 厥陰과 辰卦의 雷에 대응하는 少陽의 대대관계로 六經의 氣化體系를 파악할 수 있다.

4) 經絡과 三才理論

天地는 만물의 上下로 모든 변화가 일어나는 공간이 되고, 그 가운데 자리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간다. 『周易·繫辭傳』에서 언급한 三才理論⁵⁹⁾은 자연계를 三分法으로 분할하여 관찰한 것으로 天'人'地의 변화를 三才思想에 투영시켰다.

『歷代神仙通鑑』⁶⁰⁾에서는 “우주에는 오직 하나의 근본이 된 氣가 있는데, 하나의 氣는 둘이 되고, 둘은 五行을 낳고, 다시 자연의 삼대(三大) 구분인 天'人'地가 생하여 만물이 盛行한다. 여기서 나누어진 둘의 氣運이 현실에 나타날 때는 五行이 되고, 五行은 자연의 본체가 되며, 곧 三才가 된다. 三才는 天'人'地이며 三才는 三源一體, 또는 三位一體이다”고 하였다. 하나의 기에서 비롯된 우주는 三才로 분할되어 만물을 생하는 天地人이 되고 이 三位가 一體로 귀납되기도 한다.

또한 天符經에서도 三才를 매우 중시하였다. 天符經은 최치원이 古碑文에 새겨진 神志篆인 檀君 天符經 八十一字를 풀어서 새겨놓은 것으로 三才의 원리와 一六數의 중요성을 잘 나타내었다.⁶¹⁾ 시작도 끝도 없는 변화의 연속으로 지극하게 큰 하나(一)라는 太極이 無窮之化하여 三極으로 나뉘어 天地人의 三極之道가 되는데, 天에도 三極의 변화가 있고, 地에도 三極의 變化가 있으며, 人에도 역시 三極의 변화가 있다고 하였다. 三은 動靜하는 陰陽의 변화로 六'七'八'九를 生하는데 이는 ‘三生萬物’에 응하여 四象'四季로 분화한다. 이와 같이 『天符經』은 天'地'人이 변화하는 象으로 三才思想을 간결하고 심오하게 언급하였다.

이상과 같은 원리에 입각하여 太極이 둘로 나뉘어 陰陽을 生하듯 인체의 元氣는 任'督脈과 精'神을 生하고, 陰陽이 五行을 生하듯 精'神은 臟腑를 生하고, 五行이 三才를 탄생시키듯 臟腑의 六經은 三陰三陽으로 구성된다.

經絡의 기화는 天'人'地의 三生萬物하는 三才의 이치에 따르면 太陰'陽明經은 地에 응하여 形化하며 山澤의 특성을 발휘하고, 少陰'太陽經은 人에 應하여 精化하며 水火의 특성을 발휘하고, 厥陰'少陽經은 天에 응하여 氣化하며 雷風의 특성을 발휘한다. 이처럼 經絡의 기화는 음양의 對待로 되어 三才의 법칙으로 운행된다고 볼 수 있다. 老子는 三才의 법칙을 “道生一, 一生二, 二生三, 三生萬物”⁶²⁾이라하여 道生一하

57) 上揭書. p.13 “雷風相薄-相反, 雷風不悖-相合. 水火相逮-相合, 水火不相射-相反. 山澤通氣-相反相合”.

58) 『素問·至真要大論』“少陽之上 火氣治之 中見厥陰, 陽明之上 燥氣治之 中見太陰.....”

59) 原本周易. p.108 「繫辭傳」“上古聖人 始畫八卦 三才之道 備矣”.

60) 李重宰, 氣란? 물과 빛과 소리. 前揭書. p.76 “由一元而分二氣 由二氣而理五行 然後三才立而品物流行.”

61) 최동환. 天符經. 서울:三一出版社. 1998. p.102 “一始無始一, 析三極, 無盡本, 天一一 地一二 人一三, 一積十錮, 無匱化三, 天二三 地二三 人二三, 大三合六, 生七八九, 運三四成, 環五七一妙衍, 萬往萬來, 用變無動本, 本心本太陽昂明, 人中天地一, 一終無終一.”

62) 老子(梁海明 譯註). 老子. 遼寧省:, 遼寧民族出版社. 1996. p.65 “注: 道, 指陰陽配合之道 它始宇宙的本原. 一; 指天地未分時的原初的混沌的元氣. 二; 指天地. 三; 指由天地產生的陽氣, 陰氣與陰陽混合二成的和氣.”

<三才에 의한 경락구성>



는 통일과, 一生二하는 待對와, 對待로 만물을 생하는 三才의 이치를 간명하게 표현하였다. 즉 太極이 나뉘어 陰陽이 되고, 陰陽이 三才의 이치에 따라 각기 三分되어 三陰三陽 六氣가 된다. 이러한 三才의 이치에 따라 인체의 十二經絡에서는 三陰三陽經의 六經과 太陰-陽明, 少陰-太陽, 厥陰-少陽 3단계로 작용한다. 또한 天地陰陽의 작용에서 ‘三生萬物’하는 것은 인체에서 臟腑陰陽이 작용에서 三陰三陽 六經이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經絡氣化의 체계에 있어서 三才의 원리가 내재되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다.⁶³⁾

이상에서 언급한 經絡氣化의 原理와 三才論에 의해 水升火降하는 경락의 運行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水升火降하는 경락의 運行체계는 만물이 生成變化하는 자연계의 법칙인 天地之間에서 일어나는 대류현상에 부합된다. 즉 地面이 태양의 햇살을 받게 되면 데워져 바람을 만들어 風火相生하여 수증기가 상승하게 되고, 天上에서는 대기의 기온 차에 의해 금화교역을 유발하여 올라온 수증기를 燥濕相濟를 통하여 雨露로 응결하여 다시 지면으로 하강시켜 끝없이 변화하는 자연 순

환체계인 수승화강하는 원리는 소우주인 인체의 경락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는 천인상응을 원칙으로 하는 내경사상과 일치한다.

III 結 論

經絡의 氣化體系의 원리를 『黃帝內經』, 河圖 洛書, 易의 八卦, 運氣理論, 三才理論을 중심으로 고찰한바 다음의 지견을 얻었다.

經絡의 氣化體系는 『內經』 이전 시기에는 장부와 경락의 상관관계가 확립되지 않았고, 『靈樞經脈』에 이르러 手足—三陰三陽—六臟六腑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經絡의 기화에 있어서 五行에 상응하는 臟腑는 生化, 氣化하는 河圖의 相生원리에 따르고, 六經에 상응하는 經氣(六氣)는 統一, 成形하는 洛書의 상극원리에 따른다. 또 任脈, 督脈의 형성은 天의 子午陰陽에 상응하는 생리발현이다. 또한 經氣의 運行은 陰經이 인체의 裏部에서 表部로, 下에서 中으로, 中에서 上으로 運行하여 陽的으로 氣化하고, 陽經은 表部에서 裏部로, 上에서 中으로, 中에서 下로 運行하여 陰的으로 氣化한다.

經絡의 氣化體系의 구체적 운용은 運氣體系를 바탕으로 臟腑五行과 六氣六經의 對化나 正化로 표현되는데, 太陰經-陽明經, 少陰經-太陽經, 厥陰經-少陽經의 對待에 의한 장부의 기화를 조절로 水升火降의 운동으로 귀속된다. 天人相應의 관점에서 天地의 六合은 陰陽五行이 氣化하여 분화(相生), 통일(相克)하는 변화가 나타나는 場이며, 인체의 經絡은 臟腑의 氣化를 통하여 分化, 統一하는 생리현상이 발현되는 場이 된다.

또한 六經의 相互待對로 燥濕相濟하는 태음양명의 4경락, 水火既濟하는 소음태양의 4경락, 風火相生하는 궐음소양의 4경락의 3단의 기화

63) 易學原論. 前揭書. p.44 “三才와 對待”.

체계는 三才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상에서 經絡의 氣化體系의 이론적인 근거는 內經醫學의 학술관점인 天人相應의 陰陽氣化를 근거로 運氣理論, 三才論, 河圖 洛書, 易의 八卦 등 이론이 종합적으로 經絡氣化의 이론체계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參考文獻

1. 王冰. 黃帝內經素問. 臺北 : 臺灣中華書局. 1972.
2. 王冰. 黃帝內經靈樞. 臺北 : 臺灣中華書局. 1972.
3. 李梴. 原本編註醫學入門內集卷一. 서울 : 大成文化社. 1981.
4. 張介賓. 類經. 서울 : 大成文化社. 1982.
5. 郭靄春. 中國鍼灸薈萃. 湖南省 : 湖南科學技術出版社出版. 1987.
6. 韓長庚. 易學原論. 서울 : 杏林書院. 1954.
7.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 上卷.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90.
8. 吉元昭治, 都光淳 譯. 道教와 不老長壽醫學. 서울 : 열린책들. 1992.
9. 姜天奉. '易'啓蒙傳疑研究. 影印本.
10. 王玉川. 運氣探秘. 北京 : 華夏出版社. 1993.
11. 金丁雨. 經絡學說을 통한 經脈病候에 對한 研究. 서울 : 東國大學博士學位論. 1994.
12. 陸瘦燕. 陸瘦燕鍼灸論.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84.
13. 許俊. 東醫寶鑑. 서울 : 南山堂. 1981.
14. 韓東錫. 宇宙變化의 原理. 서울 : 杏林出版社. 1980.
15. 張介賓. 原本類經. 서울 : 大成文化社. 1982.
16. 洪元植. 中國醫學史. 서울 : 東洋醫學研究院. 1984.
17. 李重宰. 기란? 물과 빛과 소리. 서울 : 明文堂. 1998.
18. 張介賓(김은하역). 國譯類經圖翼運氣編. 서울 : 一申社. 1992.
19. 鄒澍(임진석역). 本經疏證 下卷. 서울 : 아티전. 1997.
20. 備旨具解 原本周易. 上海 : 元貞書舍.
21. 安原田. 東洋學 이렇게한다. 서울 : 대원출판사. 1989.
22. 章虛谷. 醫門捧喝. 臺北 : 自由出版社. 1982.
23. 韓圭性. 易學原理講話. 서울 : 藝文志. 1997.
24. 최동환. 天符經. 서울 : 三一出版社. 1998.
25. 老子(梁海明 譯註). 老子. 遼寧省 : 遼寧民族出版社. 1996.